

<https://doi.org/10.22643/JRMP.2020.6.1.1>

The world was changed by COVID-19

Jae Min Jeong^{1,2,3*}

¹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,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eoul, Republic of Korea

²Cancer Research Institute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eoul, Republic of Korea

³Department of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eoul, Republic of Korea

작년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 폐렴이 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올해 초에 한국에도 이 병이 들어왔다.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처럼 몇 달 정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병이 전 세계로 퍼져 반 년이 지나도 소동이 끝나지 않는다.

그래서 6월에 있는 미국 핵의학회도 7월로 미뤄 저 온라인 회의로 바뀌었고, 올해 12월에 하와이에서 할 예정이었던 PACIFICHEM도 내년 12월로 미뤄졌다. 우리나라에서 올해 11월에 개최하기로 한 한중일 방사성의약품 학회는 내년 5월에 프랑스에서 할 예정인 ISRS의 상황을 봐 가면서 1년 또는 2년을 연기하기로 하였다. 내년 ISRS도 연기가 되면 참으로 큰일이다.

1918년부터 1919년에 걸쳐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은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5천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사망하였다. 당시 우리나라도 20만 명이 넘게 사망하였다고 한다. 그에 비하면 이번 소동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새 발의 피다.

이 소동 중에 몇몇 회사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돈방석에 앉았다.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회사들이다. 또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백신도 개발되고 있다. 아직 실용화에 성공한 적이 없는 RNA 백신이 개발되어 실용화될 지도 모르겠다. 그러면 인류의 질병 퇴치의 역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.

지구는 22억년 전과 7억년 전에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인 적이 두 번 있었다. 이를 눈덩이 지구 (Snowball earth)라 하고 생명체들이 대량 전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. 그러나 첫 번째 눈덩이 지구가 끝나자 그 이전에는 없던 진핵세포 (eucaryote)가 나타나서 번성하였고, 두 번째 눈덩이 지구가 끝나자 다세포 생물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. 이처럼 위기는 기회를 불러 온다.

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면 우리 학회나 학술지도 더 크게 발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. 그러기 위하여는 회원들이 모두 새로운 종

Received: June 27, 2020

Corresponding Author : Jae Min Jeong, Ph.D.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ngno Jongno-gu, Seoul 110-744 Korea

Tel: +82-2-2072-3805, Fax: +82-2-745-76, E-mail: jmjng@snu.ac.kr

Copyright©2020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

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그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